우암학원 창학 70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광주 최초! 뉴욕감성 지식산업센터
허드슨 1041 첨단2지구
8월 20일 오픈 T.372-6666 시공 삼일건설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1329호 1판 (음력 7월 7일) 2020년 8월 25일 화요일

유흥시설 방문 검사자 5천명 … 광주의 부끄러운 민낯

상무지구 유흥업소발 코로나 확진 27명 …검사 시한 연장
광주서 광화문 집회 전세버스 3대 등 동원 222명 참석한 듯
131명 검사 8명 확진·가족감염까지 … 91명은 연락 두절

한때 전국을 대표하는 코로나19 선진방역 도시였던 광주의 부끄러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관련기사 2·3·4·5·6면〉

수도권발 코로나19 대확산이 시작됐는데도, 1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접객 여성이 있는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등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고 유흥주점 등은 방역수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영업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전국 확산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는 '8·15 광화문 집회'를 다녀왔던 사람 중 상당수는 방역당국의 전화연락조차 받지 않는가 하면, 이동동선 자체를 허위로 진술했다가 고발조치되기도 했다.

그동안 철저히 방역 수칙을 준수해 왔던 다수의 시민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 시민은 "일부의 무분별한 행동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조차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엉망이 됐다"며 "지금까지 일상의 어려움을 견뎌내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온 대다수 시민은 바보가 된 기분일 것"이라고 성토했다.

24일 광주시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발생한 광주 상무지구 유흥시설(업소)발 코로나19확진자는 이날 오후 6시 현재 27명이다.

광주시는 이날 마감예정이었던 상무지구 유흥시설(8월6~16일), 8·15 광화문집회(8월 15일), 서울 사랑제일교회(8월 7~13일), 경북궁역 인근 집회(8월 8일)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 실시 행정명령을 오는 26일까지로 연장했다.

광주시는 행정명령 기간 내 검사자에 대해선 감염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고발조치와 구상권 청구 등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광주시의 행정명령에 따라 검사를 꺼려오던 유흥업소 이용자들의 뒤늦은 검사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상무지구 유흥시설 방문자 중 진단검사를 받은 자는 지난 20일 기준 1493명이었으나, 24일 현재 4500명을 넘어섰다. 불과 4일만에 3000명이 넘는 유흥시설 방문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추가로 받은 것이다.

이는 3000명이 넘는 상무지구 유흥시설 방문자가 일주일 넘게 방문사실을 숨기고, 가족 등과 접촉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해 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방역당국은 상무지구 유흥시설 방문 관련해 이날 현재 자가진단 검사자가 5000명에 육박하는 점에 주목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는 방문자의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한 방역 전문가는 "스스로 검사를 받은 사람이 5000명 수준이라면, 실제 상무지구 유흥시설 방문객은 두배 이상인 1만명이 넘을 가능성이 있고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광주시에서 익명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행정명령 기간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8·15 광화문발 집단감염 우려도 여전하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열린 서울 광화문 집회에 광주에서 전세버스 3대와 개인차량 등을 이용해 222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중 131명이 검사를 받아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1명은 가족 감염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중 91명은 여전히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날까지 재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검사를 독려하는 한편 연락 두절자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시민의 상황 인식도 많이 무뎌지고 있다"면서 "나와 내 가족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감과 공동체 안전을 위한 높은 시민의식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광주에선 이날 3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총 누적 확진자는 283명이다. 광주시는 이날 상무지구 유흥주점 중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6곳과 역학조사에서 광화문집회 참가사실을 숨기고 동선을 허위진술한 252번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교사 확진에 초등학생들 검사 24일 오전 화순군 화순초등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다. 화순초는 이날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교사와 학생 1000여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순천 베스트병원 전남 첫 코호트 격리

전남 코로나 재확산 유행 바이러스, 초기보다 전파력 6배 GH형 가능성

화순초 교사·학생 952명 조사

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하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유형이 신천지 등을 매개로 유행하던 초기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6배 이상 강한 'GH형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순천 베스트병원에 코호트 격리 조치를 취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코호트 격리조치는 전남에서 처음 내려진 조치로, 지난 22, 23일 병원 입원 환자, 입원 환자가 잇따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자 집단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해 2주간 병원과 외부를 단절하는 격리 조치다.

전남도 강영구 보건복지국장은 24일 전남도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최근 순천·광양지역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순천에 긴급 파견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은 확진자 발생 속도, 양상 등에 미뤄 초기 유행 바이러스와 다른 'GH형 바이러스'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순천, 광양, 진도 등 전남에서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GH형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GH형 바이러스는 미국과 유럽에서 앞서 유행한 바이러스로, 신천지·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하던 당시 발견됐던 V형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6배 이상 높다고 알려진다.

전남에서는 지난 2월 1일 첫 확진자(나주 40대) 발생 이후 이날 현재까지 모두 8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 16일까지 6개월 보름여 간 발생한 확진자는 43명, 이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 25명을 제외한 지역사회 감염자는 18명이다. 코로나가 재확산한 지난 17일부터 발생한 확진자 39명은 모두 지역사회 감염 사례다. 앞선 6개월여간 발생한 지역사회 감염자(18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지역사회 감염자가 최근 1주일 사이 쏟아진 것이다.

무섭게 번지는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 방역당국은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선 순천의 한 병원에는 코호트 격리조치가 내려졌다. 이 병원에서 방문객, 입원 환자 등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하는 임시 직원이 지난 22일 확진(전남 72번)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입원 중인 환자(전남 82번)도 지난 23일 확진되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광주 282번 확진자가 교편을 잡고 있는 화순초는 교사와 학생 등 952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 중이다. 바이러스 조기 차단을 위해 학교 뿐 아니라 화순지역 학원생에 대한 전수검사도 할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역대급 태풍 '바비' 오늘 밤부터 영향

전남 시속 144~216km 강풍

광주·전남지역이 25일 밤부터 제 8호 태풍 '바비'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6면〉

2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일본 오키나와 서북서쪽 약 210㎞ 해상에서 제8호 태풍 '바비'가 시속 13㎞의 속도로 동북동진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80hPa, 강풍 반경은 약 280㎞, 태풍 중심의 최대 풍속은 시속 104㎞다.

이 태풍은 25일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북상해 26일 제주도 서쪽을 지나 서해상으로 이동한 뒤, 27일 황해도에 상륙해 내륙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해안에는 25일 밤부터 27일까지 최대 시속 144~216㎞의 강풍이 예상되며, 27일까지 50~1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태풍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시기는 26일 오후부터 27일로 예상되며 태풍의 이동경로에 가깝고 지형의 효과를 가장 많이 받는 지리산 부근은 최대 300㎜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불붙은 2차 재난지원금 논의 ▶4면
굿모닝 예향 - 만화가 이희재 ▶19면

KIA, 광주일고 이의리 1차 지명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의 새로운 심장으로 떠오를
지식산업 핫플레이스!
허드슨 1041 첨단2지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첨단 지식산업 플랫폼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혁신 비즈니스 시대를 열다

분양금액의 최대 80%까지 장기저리융자 가능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등 세제혜택
최대 70억 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청년창업, 스타트업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입주예정

시행 KAIT 한국자산신탁 시공 삼일건설 위탁 삼일루체아

[사업개요]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041번지 ※규모 : 지하3층~지상15층 ※대지면적 : 6,618.000㎡
※용도 : 지식산업센터(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기타지원시설 ※건축면적 : 3,498.68㎡ ※연면적 : 37,879.33㎡
지식산업센터 184실 | 근린생활시설 77실 | 지산-창고 21실 | 운동 및 문화집회시설 3개소

8월 20일 오픈
T.372-6666

홍보관 : 광주 서구 마륵동 165-14